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도입 등 지속가능 미래교육 열 것”

**장석웅 전남교육감 취임 3주년
학습격차 해소 등 5대 핵심과제
2023년까지 창의융합교육센터**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4일 오전 전라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 큰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 전남교육의 탄탄한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전남교육은 이제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혁신으로 시작된 담대한 변화를 통해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남교육이 어떠한 위기에도 중단 없이 빛날 수 있도록 ▲ 학습격차 해소와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강화 ▲ 자녀통합 돌봄체제 구축과 학생 건강회복 ▲ 디지털사회 창의 융합인재 육성 ▲ 전남형 미래학교 육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4일 오전 전라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전남교육청

성 △ 분권과 자치에 대비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학습격차 해소와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진단교사 확대 배치, 인공지능 온라인 튜터 확대 운영, 전남교실ON닷컴2.0 고도화 및 전남형 공공학습 플랫폼 조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자녀 통합 돌봄체제 구축과 학생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돌봄터 사업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확대하고, 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셋째, 미래형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물론 창의융합교육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시·군에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특성화된 작은 학교,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미래형 혁신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전남의 실정에 맞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코로나 시대 교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전남의 미래가 살아 숨 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섯째, 자치와 협치가 꽃피는 지역 교육생태계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이 인사와 예산 운용의 자율권을 갖고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 될 혁신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취임 후 ‘모든 학생들은 소중하고 특별하다,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전남교

육의 담대한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 3년을 회고했다.

장 교육감은 그 성과로 ▲ 선제적인 교육복지 확대 ▲ 교실수업 혁신과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 미래교육 기반 조성 ▲ 민·관·학 거버넌스 토대 구축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변화와 혁신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며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주시는 교육가족과 도민 덕분에 전남교육이 침체를 딛고 미래를 열며, 알차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취임 3주년(7월 1일)을 1주일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전남교육 TV)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홈앤쇼핑, 영주시와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

**영주 사과 홈쇼핑 판매호조 계기
다양한 영주 특산물 판매 예정**

홈앤쇼핑이 경북 영주시와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에서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 장욱현 영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홈앤쇼핑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영주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협의는 앞서 홈앤쇼핑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영주 사과의 판매 호조를 계기로 성사됐다. 홈앤쇼핑은



홈앤쇼핑 김옥찬 대표(왼쪽)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에서 경북 영주시 장욱현 시장과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을 맺었다. /홈앤쇼핑

지난 5월 ‘빨간마녀 사과’를 론칭한 이후 2회 방송에서 총 6400세트, 38톤 가량을 판매했다. 향후에도 사과를 비롯해 다양한 영주 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홈앤

쇼핑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주 한우, 풍기 인삼 등 영주의 우수한 특산물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는 “코로나19로 매출 부진 등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홈앤쇼핑의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특집전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홈앤쇼핑은 2014년부터 매년 농산물 상생마케팅을 진행하며 농업인 지원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방송을 편성해 피해 중소기업 15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광주주센터 개소식 행사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후사노프 노짐 바흐티오로비치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우즈벡 장관 접견

노동시장 등 상호 관심사 논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우즈베키스탄 노짐 후사노프 고용노동부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코로나19 시대 광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노동시장과 노동환경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날 접견은 23일 열린 광산구 소재 우즈베키스탄인 쉼터 개소에 참석하기 위해 노짐 후사노프 장관이 광주를 찾으면서 마련됐다.

이날 접견에는 노짐 후사노프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파이지에브 하이다르 주한 우즈베키스탄 영사, 안리나 주한 우즈베키스탄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해외 노동자들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국간 경제교류, 인적 왕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짐 후사노프 고용노동부장관은 “어제 쉼터 개소식 후 자국 근로자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한결같이 광주가 살기 좋은 지역이고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근로자쉼터 개소에도 시에서 도움을 줘서 고맙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청송 대전사 영산회상도, 유형문화재 지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62호

청송군은 최근 ‘청송 대전사 영산회상도’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62호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전문가 및 도 문화재위원들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차 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 시, 도지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재 지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차 동산분과 회의(6. 11.)에서 지정 심의 후 고시를 통하여 최종 확정됐다.

청송 대전사 영산회상도는 인도 영취산에서 있었던 석가모니불도의 설법모임을 도해한 불화로, 화면 중앙 석가여래의 좌우에는 문수와 보현보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지장보살을 포함

한 8위의 보살로 구성되어있으며, 화기(畫記)의 일부가 마모되어 있으나 수화승 밀기(密機) 등을 통해 불화의 조성연대(1740년 또는 1750년)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석가모니불도의 영산회상을 주제로 한 전형적인 근접형 구도로써, 18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청송군은 이번 ‘청송 대전사 영산회상도’ 지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6건, 도지정문화재 35건을 합해 모두 51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우수한 도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송(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광주광역시

구직청년에 교통수당 지원

광주광역시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 참여자 1800명을 모집한다.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은 지난 2017년 시행 이래 5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거주 만19~34세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인 미취업 청년이다. 광주시는 거주지 요건, 가구소득 등 지원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이 낮은 순(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영양군, 실명예방재단과 안과 무료검진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영양군은 6월 24일 영양군보건소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과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안과검진은 안과전문 진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실명예방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안과전

문의 2명이 포함된 검진 전담팀이 문진,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진 후 이상소견자는 투약, 상담 및 돋보기를 배부하고, 안과적 수술(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이 필요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한해서 수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